

# 地理教育의 특성과 과제

康 勝 三  
(全南大 地理教育科)

## 1. 序

人間은 태어날 때부터 地表上의 人文的·自然的 諸 現象과 밀접한 關係를 맺으면서, 意識 혹은 無意識中에 地理的인 知識을 습득하고 있다. 地表上의 人文적·자연적 여러 現象을 人間과 自然이라는 觀點에서 研究하는 學問이 地理學이다. 人類 歷史의 發展과 함께 地理學도 꾸준히 發達해 오면서 地理學의 本質과 方法論이 크게 變해왔고, 그에 따라 地理教育도 많은 變化가 있었다. 우리나라의 地理學은 최근 급속한 發展을 이루고 있으나 地理教育은 아직도 先進國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中等學校 및 大學에서의 地理教育은 國史나 國民倫理처럼 정책적인 배려가 없어서 強調되지 못하고 있으며 國民的인 관심도 부족한 상태이다.

이러한 觀點에서 本稿에서는 바람직한 地理教育의 實施를 위해 現在 問題가 제기되고 있는 地理學의 本質과 方法論에 대해 地理學 思潮의 變遷過程을 통해 考察하고, 우리나라 地理教育의 現狀과 教育制度를 外國의 경우와 比較하여 살펴 본다. 마지막으로 地理教育의 問題점 해결과 發展 方向을 논하고자 한다.

## 2. 地理學의 本質

近代 地理學이 成立된 이후 地理學은 學問的

特殊性 때문에 다른 분야의 학문보다 학문의 본질과 방법론에 관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討論되어 왔다. 地理學의 發達 과정에 비추어 볼 때 環境論, 景觀論, 地域論, 空間理論 등의 本質에 대한 問題나 計量 分析과 같은 方法論上의 問題는 당시의 地理學 研究와 教育에 지대한 影響을 끼쳐 왔다.

地理學의 歷史는 古代 그리스·로마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古代의 地理學은 체계적인 교육이나 훈련이 없었던 哲學者, 政治家, 歷史家들에 의해서 주로 연구되었다. 당시의 地理學은 人間의 居住 環境으로서의 地球 자체의 形狀이나 크기, 地表面 위에 나타나는 여러 現象을 백과사전식으로 記述한 것에 불과하였다. 17 세기에 Varenius는 「一般地理學」에서 地理學을 系統地理學과 地誌(特殊地理學)로 구분하여 그 유산이 지금까지 이르고 있다. 18~19 세기에 이르러 地理學의 本質, 對象, 研究方法에 대한 問題가 제기되었고, Humboldt와 Ritter에 의해서 獨立的인 學問으로서의 地位를 확보하게 되었다. 그 이후의 地理學은 점차 分布의 學問에서 關係의 學問으로 변하게 되면서 人間과 自然 環境과의 關係 규명을 目標로 하는 環境論이 대두되었다. 특히 Ratzel은 環境論 자체를 地理學의 本質的인 개념으로 보았다. 地理學에서 環境의 重要性은 무시될 수 없다. 그러나 環境論은 一般化의 추구에 따른 問題, 특정한 現象보다는

현상들간에 발생하는 關係를 강조하고 地理的인 方法을 무시하는 문제 등이 있다.

景觀論의 개념은 Schlüter 에 의해서 비롯되었는데, 그 자체는 地理學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의 하나이지만 그의 景觀은 可視的인 景觀이며, 景觀에 대한 精確한 用語의 定義가 문제되고 있다.

Hettner 는 이와 같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地誌의 研究를 주장했다. 地域論은 地誌가 地理學의 궁극 目標이며, 地域을 地理學의 연구 대상으로 보았다. Hettner 에 의해서 대부분의 지리학자들은 地誌를 지리학의 最終 目標로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종래 地理敎育에 있어서 地誌를 내세우고 지역의 특색을 강조한 것은 그와 같은 연유에서이다. 그러나 地誌는 일정한 地表 空間의 모든 정보를 수집·종합해 놓은 것에 불과하여 科學的이 아니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地理學에 있어서 空間 秩序에 대한 研究는 1930년대초 Christaller 의 中心地理論이 발표된 이후 1950년대 이래로 美國을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計量革命과 함께 空間理論에 대한 연구가 地理學界를 휩쓸어 地理學이 空間理論의 科學으로까지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計量的 수법이 現代 地理學의 발전에 크게 공헌한 것은 사실이지만 計量的인 分析 方法은 지리학 敎育의 方法이 아니며 社會의 구조적인 모순, 빈곤, 범죄, 환경 오염 등의 문제 해결에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제까지 살펴 본 우리의 지리학 현실은 本質이나 接近 方法이 확고하게 정립되지 않아 각국의 새로운 地理的인 思想이나 方法論의 수용에 지나치게 몰두한 나머지 地理學의 本質을 망각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리하여 大學과 中等學校에서의 敎育의 내용이 크게 바뀌거나 基本的인 개념 정리가 되지 않아 地理를 공부하는 학생들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 3. 地理敎育의 現況

우리나라 地理敎育의 現況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과거의 지리敎育을 먼저 언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地理敎育은 新敎育의 胎動期

인 舊韓末부터 시작되었다. 美國人 Hulbert 가 「士民必知」라는 地理書를 저술하고 育英公院에서 지리 과목을 敎育했다. 뒤이어 1895년 小學 校令, 1900년 中學校令이 발표되어 地理敎育의 目標을 애국·애향하는 정신을 함양하는 데 두고 韓國地誌와 世界地理를 가르쳤다. 日帝의 強占에 의한 植民地敎育이 시작되면서 地理科 敎育의 內容은 日本地誌와 自然地理가 중심이 되었다. 일제 말기에 접어들면서 韓國人을 皇國臣民化하기 위해 지리 과목을 政策科目으로 지정하였다. 日本 學者들의 地理 研究는 朝鮮의 植民 統治나 수탈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이용되었다. 1924년 京城帝國大學 내에 地理學 강좌가 개설되고, 1936년 京城高等商業學校와 연희전문학교에 商業地理와 經濟地理가 附設되었다. 이와 같이 지리 과목은 舊韓末 이래 초·중·고 및 사범학교에서 중요한 과목으로 여겨져 왔으나, 1946년에 이르러서야 서울大 師範大에 地理科가 최초로 설립되었다. 뒤이어 慶北大, 梨花女大, 서울大 文理大 등에 學科가 설립되었으나 1960년대말까지 7개에 불과했다. 1970년대에 들어 각 大學에 많은 新設 學科가 생기기 시작, 1986년 현재 30여 개의 地理 전공 學科가 설치되어 있다.

한편 大學院에서의 地理敎育은 1951년 서울大에 碩士學位 과정이 설치된 이후 각 大學에 一般大學院과 敎育大學院이 설치되어 전문적인 地理敎育의 중심이 되었다. 大學院에서의 敎育은 중등 敎師의 質的 向上 및 大學 敎授 요원 養成에 공헌하고 있다.

學會의 活動 狀況을 보면, 1938년 京城大學 안에 大陸文化研究會가 조직되어 몽고 학술탐험대를 조직하고 조사를 행하여 「몽고의 自然과 文化」를 刊行하였다. 大韓地理學會의 前身인 朝鮮地理學會는 1945년 創立되어 해방 후에 改稱하였다. 1973년에는 地理敎育에 종사하는 敎師를 중심으로 韓國地理敎育學會가 창립되었다. 그 밖에 大學을 중심으로 研究所를 설립하여 研究報告 覽을 출간하고 있으며, 각 大學의 學科 卒業生을 중심으로 論文集이 출간되고 있다. 그러나 學科나 學會의 출발이 地理敎育이 主流을 이루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地理敎育에 대한 論文이

나 著書가 빈약한 것은 研究가 學問的인 면에 欠乏해 왔기 때문이다.

한편 地理學者의 국제 활동을 보면, 1960년 國際地理學聯合(I.G.U.)에 가입했으나 활동이 빈약한 편으로 앞으로 國際間의 學術交流 活動의 活性化가 요구된다.

地理教育의 人的 資源 狀況을 살펴 보면, 1946년 최초로 學科가 大學에 設치되었으나 韓國人으로 大學에서 地理學을 專攻한 學士가 한 사람도 없었다. 따라서 中·高 및 師範學校는 물론이고 大學에서조차 地理學 강의를 담당할 전공자가 없었다. 이에 따라 草創期에는 大學에서의 전공학자 부족으로 非專門性과 零細學科로서의 면모를 벗어나지 못했다. 地理科 教授의 수는 학과 的 增設과 學生數의 증가에 따라서 1970년대 후반 이후 크게 증가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대부분 學科의 전임 교원의 수가 4명 내외로 地理學의 特殊性에 비추어 볼 때 地理學 자체의 發展과 研究에 定진할 수 없는 狀況이기 때문에 完전한 地理教育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實情이다.

#### 4. 地理教育 課程 및 制度

地理學科의 教育課程과 制度는 각 나라마다 約간의 差이가 있다. 영국, 프랑스, 독일을 중심으로 한 유럽의 地理教育 과정은 大學 중심으로 美國에서는 大學院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이 特色이다. 서부 유럽과 소련 等地에서는 美國에 比해 自然地理에 重點을 두고 있으며 스웨덴, 폴란드에서는 地理學者의 社會參與 活動이 두드러지고 있다. 美國에서는 都市地理學, 經濟地理學, 環境知覺 분야의 관심 增대와 航空 및 위성 사진에 관한 연구와 그 응용 研究가 증가하고 있다.

프랑스의 敎科課程을 보면, 大學部의 경우 지리 과목이 50%, 기초 과목이 50%로 構成되어 있다. 기초 과목으로는 地質學, 水文學, 氣象學, 岩石學, 海洋學 등의 自然科學과 社會學, 經濟學, 歷史學 등의 人文社會科學 그리고 數學, 統計學, 外國語 등이 있다.

우리나라의 地理教育은 과거 160 學점제에서 實驗大學 실시 이후 140 學점으로 축소되면서 전

공 과목과 교양 과목이 각각 50% 내외로 構成되어 있다. 교양 과목의 비중이 높은 것은 오늘날 大學教育이 교양 및 기초 학문 教育에 重點을 두고, 專門教育의 중심이 大學院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1학년에서는 地理學의 概論 정도만을 敎育하며, 2~4학년 때 專攻科目을 중심으로 敎育하고, 1~2학년 때는 교양 과목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地理學과 크게 관련되지 않는 高校의 延長과 같은 敎科目이 많은 것이 문제이다. 地理學은 自然에서 人文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여 폭넓은 기초 知識을 要求하고 있는 學問이다. 따라서 교양 과목으로 地理 相關 기초 과목, 즉 地質學, 岩石學, 氣象學, 經濟學, 統計學, 歷史學 등을 重點적으로 敎育할 수 있는 制度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地理教育 課程에서 볼 때 실습 또는 野外踏査를 필요로 하는 과목이 많은데 이것이 地理教育의 特色이다. 오늘날 大學의 地理學 敎育에 있어서 실습 또는 야외 답사야말로 地理學의 理論을 具體化하는 기술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이다. 실내 실습은 주로 문헌 및 자료의 分析, 地圖化, 野外調査 資料의 정리, 地圖의 製도, 地圖上의 거리, 면적, 경사 측정, 地形圖 및 航空 寫眞 判讀, 사진 現상, 환등기 조작, 각종 모형 製작 등으로 構成된다. 野外調査는 現地에서의 淸취, 관찰, 실측 등의 과정을 통해 수행하는데 대부분의 大學에서 매년 1~2회 定期 踏査를 실시하고 있다. 그 밖에 不定期的으로 답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教授의 부족, 學生數의 과다, 경비 문제 때문에 효과적인 과목별 답사의 실시에는 어려움이 있다.

地理學科의 대부분은 文學部에 속해 있으며 理學部에 속해 있는 학과는 소수에 불과하다. 師範大學 안에서는 地理教育科 내지 社會教育科 地理專攻으로 되어 있어서 실험 실습 및 야외 조사에 필요한 각종 기재의 확보에 어려움이 많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地理教育이 실내에서의 강의 위주로 전락하여 地理教育의 質的인 向上을 꾀하는 데 어려움이 많은 實情이다.

敎育內容에 있어서 應用分野 敎과의 부족 때문에 地理學徒의 대부분은 現實的인 문제의 적

용 능력과 기술을 연마하지 못하여 敎育界 이외의 社會 여러 분야에는 크게 공헌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최근에 地理學의 計量的인 空間 分析을 통한 地域開發, 都市計劃 분야로의 공헌이 증대되고 있다. 地理學者들은 人間과 自然環境에 폭넓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環境 문제, 人口 문제 등의 해결에 기여를 하게 된 것이다.

## 5. 地理敎育의 改善 方向

우리나라 地理敎育의 歷史는 舊韓末 이후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大學에서의 체계적인 敎育은 약 40년 정도에 불과하다. 짧은 역사에 비하면 量的·質的으로 成長을 했지만 아직도 先進國의 초기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地理敎育 문제점의 改善 方向을 요약하며 글을 맺고자 한다.

첫째, 地理學의 本質과 接近 方法에 대한 혼란을 막기 위해서 기본적인 개념 규정이 先行되어야 하며 地理學의 基本 目標을 정립시켜야 한다.

둘째, 制度的인 문제로 專攻科目의 비중을 높이고 地理 관련 기초 교과목의 敎育을 증대시켜 전문적인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한다.

셋째, 地理敎育은 理論敎育과 실습, 야외 조사가 併行될 때 그 효과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學問的 特性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시설 및 기재의 확보가 요구된다.

네째, 地理學의 理論的이고 計量的인 接近으로 야외 조사에 의한 자료 수집 절차가 무시되

거나 그 중요성이 감소하고 있다. 地理의 研究나 敎育은 실내 敎育이나 실내 작업으로 만족할 수 없다. 地理學이 場所 내지 地域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이상 地域의 야외 조사는 가장 중요한 절차이다.

다섯째, 國土의 環境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中等學校 및 大學에 國土地理가 필수 과목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다.

여섯째, 大學의 地理學科間의 각종 정보를 교환하여 相互間의 협조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인접 學問과의 交流를 활발히 하며, 실제 應用 분야의 과목에 중점을 둔다.

일곱째, 英國이나 美國의 경우를 볼 때 地理學이 대중 속에 一般化하여 生活化되고 있다. 이는 國家에서의 정책적인 후원에 힘입은 바가 크다. 우리나라에서도 國立地理院, 國土開發研究院과 같은 기존 研究所에 地理科 출신이 대거 진출할 수 있도록 制度的인 배려가 요구된다. 또한 체계적인 學問 研究와 地理學의 대중화를 위하여 大學에 學科를 중심으로 研究所를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덟째, 각종 公務員 採用法에 地理職을 설치하여 道誌, 郡誌, 邑誌 등이 향토의 地理學徒에 의해 집필되게 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地理敎育이 量的으로뿐만 아니라 質的으로 內質을 기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地理敎育에서 탈피하여 미래의 國體 社會에 대응할 수 있도록 地理敎育 制度의 改善에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